차암련 회장에 듣는다

"청소년 포교 적극 돕겠다"

청주 청원불교련 이두스님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이 간행된 청주지역의 불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한마음이 되어, 불교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불교의 화합에 중점으로 둘 생각입니다."

지난달 28일 충북불교문화회관에서 이원종 충북도지사와 청주시 부시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불교연합회 이취임식에서 신임회장에 취임한 이두스님(관음사주지 · 조계종원로의원)은 취임일성으로 지역 불교계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날 이두 스님은 "지난 몇 년간 불교연합회 소속 각 종단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교발전을 위해 화합할 것"을 강조했으며, 전임회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취임사를 했다.

직지 학술 · 문화행사 열어

40여 사찰 이웃돕기 펼쳐

이두 스님이 이처럼 '화합'을 여러차례 강조한 것은 청주 · 청원지역이 활발한 불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종단간의 불협화음 및 불교단체간의 미묘한 경쟁의식이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연합회 차원의 자체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청주 및 청원지역은 지방 중 · 소도시 중에는 불교 신행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 발족한 불교연합회의 40여 회원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청주방송과 충북불교문화회관 등 중요한 불교 인프라를 갖추고 다양한 불사를 펼쳐왔다.

지난해만도 봉축기념 창작등 전시회, 청주성탈환기념 영규대사 추모대재, 직지와 불교문화 학술심포지움, 직지 정대불사 및 연등대법회, 직지 대강연회 등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은 많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두 스님은 지난해 직지 정대불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불교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올해도 청주시와 협력해 직지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4월과 12월에는 각 사찰별로 불우이웃 돕기를 실시하고, 봉축행사로 불교문화공연, 봉축대법회, 봉축 시가행진, 봉축음악제 등 다양한 연등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오는 9월 청주시민의 날을 전후해서는 지역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무심천 연등대법회를 열어 전통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이두 스님은 가장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 포교부문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파라미타 충북지부가 주도하는 문화재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문화재애호 및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전통 등 및 창작등 전시회, 봉축 기념 사경공모전, 파라미타 청소년축제 등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 포교의 신기원을 이룬다는 원력이다.

시인으로서 〈겨울 빗소리〉 등 많은 시집과 수필집으로 시민들을 불교로 귀의시켜 온 이두 스님은 모든 불교행사를 문화적으로 꾸며, 불자 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청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국보 연곡사 부도 훼손

상륜부 · 몸돌 떨어지고 기단부 깨져

최근 문화재 도난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사찰에서 도굴 미수로 보이는 문화재 훼손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구례 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국보 제54호인 연곡사 북부도가 분리된 채로 발견돼 문화재 도굴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부도가 훼손된 사실을 처음 발견한 연곡사 원주 대륜 스님은 "매일 두 차례씩 북부도 주변을 순찰하는데 전날 오후까지는 이상이 없었으나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가 보니 부도의 상륜부와 지붕돌, 몸돌 등이 분리되어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상륜부와 지붕돌, 몸돌이 분리된 연곡사 부도.

문화재청 확인결과 부재가 절단되지는 않았으나 기단의 하대석 모서리 부분 등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도의 기단부에 문화재가 소장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 문화재 도굴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도의 높이가 3m가 넘는 점, 하대석에 기단부를 들어올리기 위해 지렛대를 댄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최소한 2~3인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69년 문화재 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해체, 복원작업을 실시할 때도 부도 안에서 소장품은 발견되지 않았었다.

고려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도는 어느 스님의 묘탑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같은 사찰에 있는 국보 제53호 동부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도 가운데 하나다. 동부도와 보물로 지정된 서부도(154호)는 훼손되지 않았다. 권형진 기자

가야불교 고향 인도에 허황후 기념비

김해시 '아유타 거리' 지정

인도 불교를 가락국에 직접 전래한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2천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최근 인도 아유타국 공주로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에게 시집(기원전 42년)온 허황옥 황후의 고향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요디아시 사루강가 10여만평에 '가락공원'이 조성된데 이어 5일 허 황후 유허지 기념비가 세워졌다.

이 행사는 아요디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김해시와 허 황후의 후손들인 김해 허씨와 김해 김씨 가락종친회의 노력으로 이뤄져 화제가 되었다. 허 황후의 7왕자는 가야산에 들어가 오빠인 장유화상으로부터 불법을 전수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김해시도 김해박물관 앞 문화의 거리 2Km를 '아유타로'로 지정하고, 허 황후의 상륙지점으로 알려져 있는 진해시 웅천과 경유지인 김해시 장유면 장유암 등에 대한 도래 행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백련사 동백꽃축제 열린다

내달 8일…사진촬영 · 차 시연 · 백일장 다채

전남 강진 백련사(주지 혜일)에서 동백꽃 축제가 처음으로 열린다.

백련사 스님과 신도 및 주민들로 구성된 '백련사 동백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방월수 강진불교대학운영위원장)는 오는 4월 8일 동백꽃이 만개(3월14일 전후 꽃이 핀다함)하는 때에 맞춰 제1회 백련사 동백축제를 개최한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151호인 백련사 동백림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후계림 조성과 사람과 나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사랑의 깨우침을 주기위해 마련되는 이번 축제는 친환경 문화축제로 승화될 전망이다.

이번 축제의 주행사는 동백나무와 사람과의 자매결연(1가족 1주로 매년 250주씩 자매결연) 및 동백나무 심기, 작설차 씨앗심기 등. 게다가 부대행사로 800년 전통의 백련사 녹차인 전다(錢茶)만들기 및 시음회, 동백화전 등 전통사찰 음식 만들기 및 시식회, 초중학생의 동백과 자연보호 소재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동백숲 사진촬영대회 등도 열린다.

백련사는 동백축제를 계기로 '동백숲 보호 및 조성 20년 계획'도 마련했다.

이 계획은 기존의 동백나무 3천여주의 고목(300~500년생)화 및 도벌 등으로 영구보존이 어려워 매년 250주(10년생)의 동백나무를 식재, 백련사 주위를 완전 동백숲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매년 500주의 자생동백묘 삽목을 생산에 사찰소유 임야 40ha에 20ha(현재 5ha)의 동백나무숲을 가꾼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신라불교 초전기념관

경북 구미시는 13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11월까지 해평면 낙산리의 고분군정비를 비롯 해평면의 석조 여래좌상, 황상등의 마애여래입상 등 문화재 5점을 복원 정비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는 사업비 5억1천만원을 투입, 도개면 도개리에 전통목조건물양식의 신라불교 초전(初傳)기념관을 건립,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파한 아도스님의 영정 등 관련자료를 전시, 국민정신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불교대 수강생 모집

광주불교교육원(이사장 이범식) 부설 광주불교문화대학(학장 영조스님, 증심사 주지)과 광주불교문화대학원은 새학기를 맞아 수강생을 모집한다.

각 1년과정, 정원 70명으로 운영되는 불교문화대학 및 대학원의 주요 교과목은 불교학개론, 불교문화의 이해, 불교문화 현장학습(1학기당 3회), 수련회, 대승불교사상, 불교와 사회 등. 수강료는 1학기 20만원이며, 입학식은 3월 21일이다. (062)228-9098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국제포교사 모집

포교원은 조계종 소속 스님 및 재가신도를 대상으로 국제포교에 주력할 국제포교사 연수생을 모집한다. 인원은 영어권 00명 및 일본어와 중국어 각 0명으로 4년제 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의 자격 소유자여야 한다. 접수시한은 4월 3일까지이며 시험은 4월 7일. (02)720-7060 담당 황충기

서 · 경 신규포교사 연수

서울 경기 지역 신규 포교사 연수교육이 17일 포교원 강의식에서 실시된다. 새로운 원력으로 시작하는 포교사들에게 지역 포교활동에 따른 팀 배치와 세부활동 지침, 소속 팀장과의 만남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연수에서 계성스님(교육원 교육부장)이 '포교사로서의 첫걸음'을 강의한다.

태고종

합동 수계산림 행자 등록

제 25기 합동 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할 행자등록을 오는 6월 3일까지 서울 종무처와 각 시 · 도교구 종무원에서 받는다.

참가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1, 2차에 걸친 소양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소양시험에 합격한 행자는 행자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행자수업을 받아야 하며 행자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오는 10월경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설판되는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02)745-2030

천태종

대웅보전 상량식

춘천 삼운사(주지 월도)는 18일 오전 11시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보전 상량식을 봉행한다. (033)253-6542

진각종

실상심인당 교양대 개설

서울 구로구 실상심인당(주교 호당)은 심인당 내에 교양문화대학을 개설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 1~3시 개설되는 교양문화대학은 △어머니들의 동화책읽기 모임 △종이접기 △사물놀이 △불교교리강좌 등을 교육하고 있다. 수강료는 무료.

법륜종

비구니회 강령 만든다

종단내 비구니스님들의 모임인 법륜비구니회(회장 도원)는 13일 오후 1시 논산 지장암에서 종단발전과 비구니스님들의 화합단결을 모색하기 위한 비구니회 기본강령및 질적 향상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

대승종

불과사 개산 10돌 행사

부산 불과사(주지 법산)는 개산 10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10시 큰 법당에서 특별기념법회와 불자정진대회, 독거노인 생활비 전달 및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제1부 특별초청법회에서는 종정 도암스님이 법문하고 제2부 불자정진대회에서는 불경 암송대회, 찬불가 독창대회를 개최한다. (051)208-9472

선각종

16일 임시 중앙종회

16일 광주분원에서 정암 총무원장을 비롯 종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한다. (062)361-8070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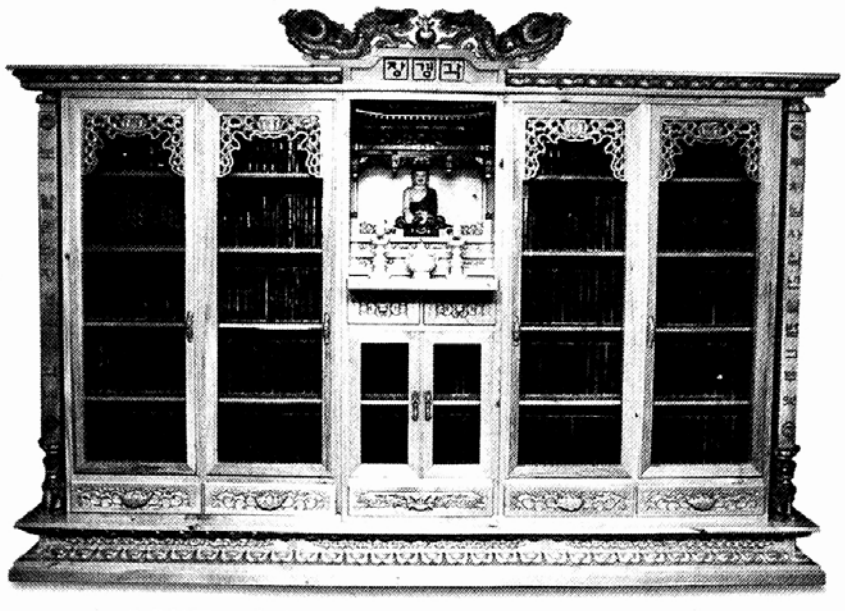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견본모델 가로 340cm × 세로 240cm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장경각은 사찰(포교당)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집무실용 세가지가 있습니다.
※ 장경각 가격은 주문사양에 따른 상담가로 결정됩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